

당서초교 2-3 신우진  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물총싸움

나는 오늘 물총을 샀다, 그래서 놀이터  
에서 가족들과 물총싸움을 했다, 팀은 아빠와,  
나 그리고 엄마, 동생으로 팀을 나누었다.  
나는 엄마한테만 공격을 했다, 그런데  
규칙이 있었다, 규칙은 동생은 맞추면  
안된다는 것 이었다, 내가 왜 맞추면  
안되냐고 물었다, 엄마가 동생은 힘이  
별로 없어서 라고 했다. 물총 싸움을 할때  
엄마가 물총으로 나의 안경을 ~~부~~썩는다,  
그래서 깜짝 놀랐어, 그래서 나도  
엄마한테 물총을 쏘았다, 그런데 아쉽 게도  
엄마가 피했다, 계속 해봐라, 이번  
만 맞추면, 그래서 너무 아깝고,  
아쉬워,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 
하나까지 실감나고 재미있었다,  
나는 이 물총싸움은 오랫동안 기억을  
하면 좋겠다